

A Daily Bread

날짜: 5785 년 시반월 14 일 (2025 년 6 월 10 일)

토라 부문: 베할로테하 (Be'halotecha)

주제: “무지”라는 축복

민수기 8:2 에 “등잔들을 켤 때에”라고 기록되어 있다. 이에 대하여 레위 대현자(라비 레비)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. “하늘에서 순전한 메노라가 내려왔다”(레위기 24:4). 미드라시는 이 메노라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였음을 가르치는데 그 근거는 거룩하신 그 분 (Kadosh Barchu),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, “너는 순금으로 메노라를 만들지니라”(출 25:31) 하셨기 때문이다. 이에 모세가 “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까?”라고 여쭙자, 엘로힘께서는 “두들겨서 만들어야 한다”고 하셨다.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,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만드는 방법을 잊어버렸다. 다시 산에 올라간 모세는 엘로힘께 말씀하셨다: “아도노이시여,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까?” 엘로힘께서 반복하여 “두들겨서 만들어야 한다”고 말씀하셨다. 모세는 계속해서 잊어버렸고, 결국 엘로힘께서 메노라의 형상을 보여주셨다(출 25:40).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. 그러자 Kadosh Barchu 께서 말씀하시기를, “브살엘에게 가라. 그가 그것을 만들 것이다.” 그렇게 되어 모세는 브살엘에게 말했고, 그는 그에 따라서 즉시 메노라를 만들 수 있었다.

이에 모세는 의아해하며 말하였다: “여러 차례 Kadosh Barchu 께서 나에게 어떻게 만들라고 보여주셨지만, 나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다. 그런데 너는 한 번도 만드는 법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들어냈구나! 아마도 네 이름이 브살엘(בְּסַאֵל)인 이유는, Kadosh Barchu 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때 너는 ‘엘의 그늘(לְשֵׁנוֹ)’에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.”

어떻게 브살엘은 모세와 같은 분께서 큰 힘을 모아서 하려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쉽게 해낼 수 있었을까? 이것에 대하여 미드라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:

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왕이 있었는데, 그는 매우 값진 보석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. 그 보석은 크고 아름답게 깎여 있었지만, 단 하나의 결함 곧 열게 변색된 부분이 있었다. 왕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소환되어 이를 살펴보고, 그들은 모두 그 결함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, 그 과정에서 그 보석을 쪼개거나 손상시킬까 두려워 직접 나서서 처리하려 하지 않았다. 어쩔 수 없이 왕의 사절들은 한 무명의 세공인을 고용했는데, 그는 이 보석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그 위험도 인식하지 못했고, 쉽사리 얼룩진 부분을 제거해냈다.

또 다른 예로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일화가 있다. 그의 아내가 난산을 겪고 있었는데, 파리의 최고의 산파들조차 그녀를 돌보는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고 물러섰다. 그의 아내는 산파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누워 어려움을 지나고 있었고, 결국 시골에서 불려온 한 무명의 농촌 산파가 ‘귀족 여성’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호출되었고, 그에 응한 산파는 아무런 문제없이 황제의 아이를 순산시켰다는 사실이다.

A Daily Bread

모세는 메노라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. 그는 메노라의 복합적인 설계의 모든 세부, 장식된 잔이나 꽃 하나하나에 담긴 신비로운 의미를 통찰하고 있었고, 그에게 주어진 과업의 중대함 앞에서 압도당했다. 그로 인해 잠재된 부담은 모세 라비누 (our teacher; 우리의 선생님)께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원래 준비 된 일을 방해하였던 것이다.

반면 브살엘은 그 메노라 짓는 사명에 대하여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. 그의 메노라를 지어야 하는 사명의 신중성에 대한 인식은 모세보다 덜 깊었고, 그렇기 때문에 책임 의식에 있어서는 그에게 적은 부담이었던 것이다. 따라서, 브살엘은 어려운 것을 인지하지 않고 부담감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

샬롬.